



브라질 선교 소식 2022년 6월

주님의 이름으로 브라질 모지에서 문안합니다.

남반구 브라질의 6월은 추운 계절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한절기입니다. 하늘은 찌뿌둥하고 몸은 으실으실합니다. 무려 영상 5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추워질 수록 한국의 온돌이 그리웁습니다. 함께 모여 따뜻한 바닥에서 기도하던 그 때가 더욱 그리웁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브라질 코로나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병원과 학교,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말입니다.

2022년 신학교 첫 번째 학기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성서 히브리어 기초를 강의했습니다. 낯선 히브리어 알파벳을 익히고 모음 기호를 배워 히브리어 단어를 읽는 데 한 학기가 소요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한국어, 매 학기 공부하는 영어, 성서 히브리어까지 쉽지 않은 학기를 무사히 마친 신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안지은 선교사는 이번 학기 초급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신학생과 관심있는 성도들 몇몇이 한글을 배웠고 저는 옆에서 보조로 섬겼습니다. 학기말에는 김밥 만들기와 전통 놀이인 제기 차기, 윷놀이 그리고 공기 놀이를 하며 한국 문화도 함께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4월에 신학생 한 명이 자퇴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참된 종으로 훈련되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5명의 신학생이 함께 공부합니다. 다양한 가정의 배경과 아픔 그리고 상처, 그 학생들이 모여 다 함께 기숙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조금씩 단련되어져 갑니다. 선교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살아감을 통해 깨어지고 낮아지고 조금씩 성숙해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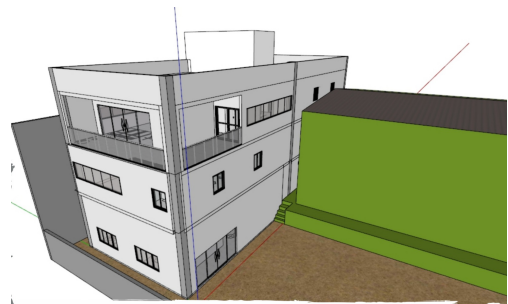


열심히 김밥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



김밥 재료를 설명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오로지 김밥

신학교 및 선교센터 건축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지난 3월에 건축가를 통해 건축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시청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허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청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신학교 근처 버스 정거장에 필요한 의자와 가림막을 기증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신학교 내에 25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건축가를 통해 시와 회의를 하며 건축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순조하게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사이 브라질의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층 건물(약 900 평방미터)의 예상 공사비가 5억을 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십분의 일만 모금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건물을 세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신학교 및 선교 센터 조감도

브라질 바나바 목회자 11기 훈련은 순항중입니다.
 목회자 부부, 남녀 전도사 각각 한 분씩, 그리고 사모님 이렇게 5명의 훈련생이 매달 2박3일씩 모여 합숙하며 여주동행의 목회자 라이프 스타일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판데믹으로 미루었던 선교 여행을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11기 훈련팀과 훈련생들

부활절 VIP 초청잔치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모지성결교회에서 새신자 초청 잔치를 가졌습니다. 온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초신자 27명을 초대하였습니다. 일반 예배 형식이 아닌 잔치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리고 복음을 제시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하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더 멋진 VIP 초청잔치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부활절 VIP 초청 잔치에 초대된 분들



VIP 초청 잔치에는 역시 나비넥타이

연애, 약혼, 결혼에 관한 특강. 바르젠 그란지에서 목회하시는 다비 목사님의 부탁으로 연애, 약혼, 결혼에 관한 특강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찾아 보기 힘든 브라질에 참으로 필요한 강의였지만, 정작 들어야 할 사람들은 오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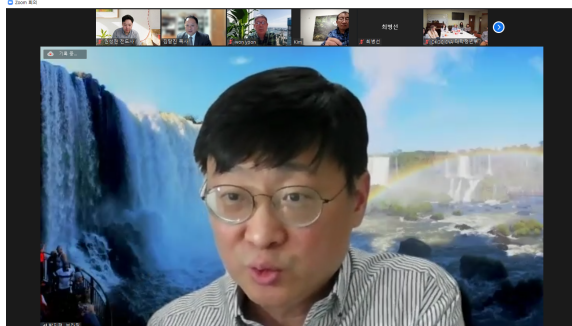
남녀가 서로 만나 한몸을 이루는 한몸의 원리 설명 중



결혼한지 40년이 훨씬 넘는 분들도 열심히 강의를 듣는데 청년들이 오지 않아 많이 아쉬움

데이튼 은혜한인교회 선교세미나. 미국 데이튼 은혜 한인교회 김달진 목사님의 초청으로 선교사의 특권과 삶이라는 주제로 이틀에 걸쳐 줌으로 선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가 어느 정도는 익숙하지만, 방에서 의자에 앉아 화면을 보며 세미나를 진행하는 일은 여전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화면 속 강사의 메시지를 잘 경청해 주

신 은혜 한인 교회 성도님, 통역으로 기도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브리가두!



배경 화면은 역시 이과수 폭포가 최고



다음에는 대면으로 만나요!

둘째 예겸이가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21살입니다. 팬데믹으로, 그리고 이곳 저곳 옮겨 다니다 보니, 한국으로는 2년이 늦고, 여기 브라질로는 3년이나 늦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과 함께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으로 오롯이 자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것처럼 예겸이도 예겸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마존 정글 학교 졸업식: 더위와 벌레도 졸업



졸업은 새로운 시작: 그래 지금처럼 당당하게, 예겸이 화이팅!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브라질은 개신교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기복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2. 모지성결교회가 모이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흠어지면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3. 방학중인 성결성서 신학교 학생들이 이 기간에도 경건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4. 신학교 및 선교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필요한 재정(5억원)이 채워지도록
5.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지만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예빈이(현재 군복무중)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예겸이에게 모든 길이 순탄하게 열리고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도록, 이제 홀로 아마존에서 공부하게 되는 막내 예성이의 영육간의 성장과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안지은 선교사의 오른쪽 어깨(회전근육에 석회질이 낀)가 치유되도록
6.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을 위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브라질 모지에서 박지형, 안지은, 예빈, 예겸, 예성 드림.